

박막트랜지스터 액정디스플레이 유리기판의 파유리를 원료로한 소다석회붕규산염계 단섬유 유리 뱃지조성을

출원인 :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발명자 : 김기동



〈기술 요지〉

소다석회붕규산염계 단섬유 유리 뱃지조성을 위해서, 상기 뱃지조성을 중 규사, 규석 또는 규사와 규석의 혼합물을 100 중량부로 하였을 때, 상기 기판유리의 상업적인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TFT-LCD 파유리를 3 ~ 55 중량부 함유되도록 하는 소다석회붕규산염계 단섬유 유리, 즉 그라스울의 뱃지조성을 제공한다.

〈대표 도면〉

TFT-LCD 파유리의 조성물

성분	중량부
SiO ₂	58 ~ 64
Al ₂ O ₃	15 ~ 18
B ₂ O ₃	7 ~ 11
MgO	0 ~ 4
CaO	3 ~ 8
SrO	0.5 ~ 8
BaO	0 ~ 3
SnO ₂	0 ~ 0.5
ZnO	0 ~ 0.5
Sb ₂ O ₃	0 ~ 0.5
As ₂ O ₃	0 ~ 0.8

〈기술의 응용분야〉

□ 박막트랜지스터 액정디스플레이 기판유리
연구분야

〈기술의 배경〉

TFT-LCD용 기판유리는 성분상 알카리를 전여 암유하지 않으며 SiO₂, Al₂O₃, 알카리토 ($MgO + CaO + SrO + BaO$) 및 B₂O₃가 주된 성분이고, 이러한 성분들이 용융과정을 통해서 잘 혼합되었기 때문에 균질도가 매우 높은 고급유리이다. 따라서 TFT-LCD 파유리는 적절한 양의 조절에 의해서 소다석회붕규산염계 단섬유 유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원료의 일부, 즉 뱃지조성을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TFT-LCD 파유리의 재활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파유리를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및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술의 특징〉

기판유리 제조공정에서 발생되어 그대로 폐기되는 파유리의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경감할 수 있으며, 종래의 단섬유 유리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천연 또는 화학원료와 비교하여 보다 고품질의 유리 원료를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용융온도를 낮추면서 유리 뱃지조성을의 제조단가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특허
현황

특허명

박막트랜지스터 액정디스플레이 유리기판의 파유리를
원료로한 소다석회붕규산염계 단섬유 유리 뱃지조성물

등록번호

10-0929869

등록일

2009.11.26